



다 시 대륙장정에 나섰다.
 때는 5월초, 여행하기에는 더 없이 좋은 계절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휴가가 주로 한 여름철에 몰려있어 여름에 주로 해외여행을 다닌다. 여름은 여행하기에 좋은 계절이 아니다. 태양이 뜨거워 일사병에 걸리기 쉽고, 체력소모도 훨씬 많다. 관광객이 일시에 여름에만 몰리므로 비행기표 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현지에서 가더라도 세계각국에서 몰려온 여행객들 때문에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다.

유럽여행을 다녀보면 봄이 제일 좋다. 꽃피는 봄이야말로 경치도 아름답고, 기후도 선선해서 걸어다니기 아주 좋다. 또 대개의 현지축제들이 봄에 많이 벌어진다. 관광객의 수도 많지 않아서 호텔 잡기도 쉬울 뿐 아니라 미리 호텔 픽으로 예약해 두면 별4개짜리 호텔을 10만원 이하로 잘 수 있는 곳도 많다.

우리나라도 정부당국이나 관공서, 공공기관들은 앞으로 휴가를 여름이 아닌 봄, 가을로 나눠서 주는 방식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이번 호부터는 중국 대륙 시리즈를 시작한다. 중국의 발전이 이미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일이고, 한국, 일본을 비롯한 미국, 유럽의 대기업들이 중국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도 이미 다 알려진 사실들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 제대로 한 번 보고 싶었다.

5월11일, 간단한 여장을 꾸리고 중국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중국에 들어갈 땐 늘 비행기를 탔지만, 이번에는 배로 들어간다. 소위 황해권 무역의 실상을 직접 눈으로 한 번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배는

- 평택항-영성, 청도, 상해 라인.
- 인천항-천진, 대련, 청도 라인
- 군산항-청도 라인 정도이다.

우선 평택항에서 중국 산둥반도의 영성항으로 들어가는 배를 타기로 했다. 평택항은 작년 10월부터 중국으로 여객을 수송하기 시작했다. 컨테이너 화물선이 다니기 시작한 것은 이미 그 이전이다. 또 얼마 전부터는 평택항에서 청도로 가는 여객선도 다니기 시작했다.

21세기 평택항시대

〈중국대륙 시리즈 제1편〉

황해 건너기와 페리

중국의 발전이 이미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일이고, 한국, 일본을 비롯한 미국, 유럽의 대기업들이 중국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도 이미 다 알려진 사실들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 제대로 한 번 보고 싶었다.

경기도는 한반도의 대 중국 무역항을 여러개 거느리고 있다. 한반도의 무역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5월11일, 토요일 오후6시에 평택항에서 중국 영성항으로 들어가는 여객선이 있어서 그곳에 갔다. 배를 탈 경우에는 사전에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된단다. 선상비자를 준다는 것이다. 번거롭게 여행사에 여권을 맡기고 다시 찾아오는 수고를 하지 않아서 좋다. 15일간 여행에 필요한 달러를 바꾸고 오후1시반 평택항에 도착했다.

토요일 오후 평택항은 분주하다. 소위 '보따리 무역'을 하는 장사하는 분들이 100여명이나 중국으로 가지고 들어갈 짐을 챙기고 있었다. 전에는 평택항에서 출발하는 여객선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생겼으므로 인천항을 무대로 뛰던 분들이 대거 평택항으로 내려온 것이다.

우선 배표구입. 그러나 여기서부터 사고가 생겼다. 달러를 내면서 배표를 달라고 하자, 달러는 안받으니 한국돈으로 내라고 한다. 그러나 여행경비를 모두 달러로 바꿔서 한국돈은 불과 몇 만원밖에 없다. 달러로 구입할 수는 없느냐고 하니 안된다는 대답이다. 하는 수없이 평택항 건물 내에 있는 은행으로 갔다.

그러나 토요일1시30분이 넘었으므로 은행은 셔터를 내리고 영업이 끝났다. 마침 은행 문 옆에 현금지급기가 있어 카드를 꺼냈으나, 현금지급기도 영업시간이 지났다고 정지시켜 놓았다.

'여기 국제항구 맞아?' 그런 생각이 불쑥 든다. 인천공항 같으면 아무 문제도 없을 텐데, 항구라 사정이 다르다. 공항관계자에게 환전할 곳을 물으니 지금 시간에는 없다는 대답이다. 환장할 노릇이다.

건물 내 기념품 코너에서 달러를 좀 바꿔달라고 하니 바꿔줄 만큼의 돈이 없다고 한다. 선상비자를 받으려면 오후3시 이전엔 배표를 구입해야한다. 그러나 도통 달러를 바꿀 수 있는 곳이 없으니 환장할 노릇이다. 하는 수없이 평택항 청사 앞에서 택시를 타고 포승면까지 나갔다. 마침 농협이 있어서 그곳의 현금지급기에서 한국돈을 인출했다.

시간이 없으니 어서 평택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현대 버스도 택시도 도무지 잡히지 않는다. 마침 렌트가 업소가 한곳 있어 들어갔더니 노는 차가 없다. 이럴 땐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는가.

버스는 한시간에 한 대 정도가 평택항에 다닌다고 하니, 그게 언제인지 알 수 가없고 무작정 기다리다간 자칫하면 배표를 제시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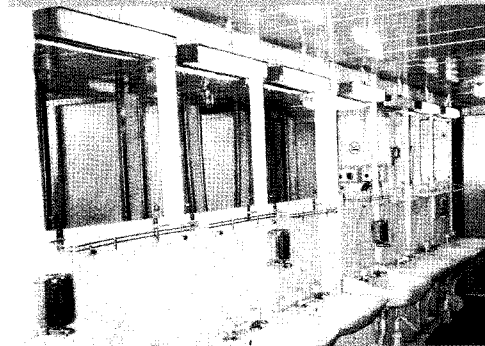


김.홍하상
/MBC 다큐멘터리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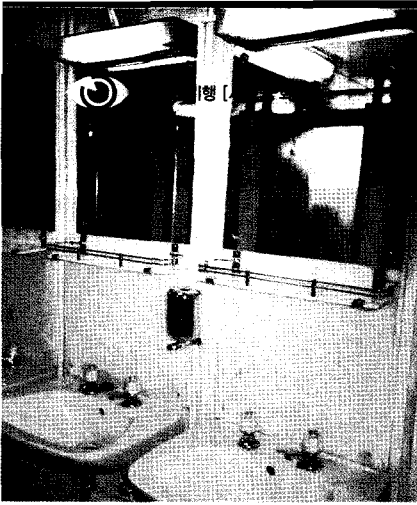
약 력



평택 - 영성 - 배안 식당 운영중
승객의 대부분은 환중 보따리 무역 종사자들이다.



용정호 공동화장실 세면대



○ 선실내 공동 화장실 세면대. 비교적 청결하게 잘 관리하고 있다.

이제 한국과
중국과의 사이에는 역사상
그 유래가 없을 정도로
대규모의 황해시대가 온다.

한국과 중국 사이의
황해를 운항하는 여객선은
한국의 얼굴이자,
첫 인상이다.

꿈을 수가 없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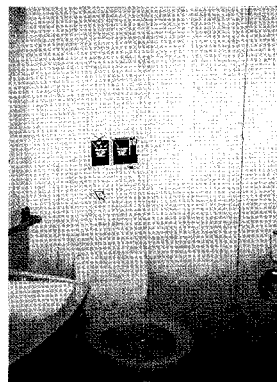
하는 수없이 편법을 동원했다.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켄터기 치킨 집에 들어가 튀김 닭을 배달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여주인이 '물론'이라고 한다. 닭한마리 값만큼 돈을 주기로 하고, 평택항까지 태워다 달라고 사정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3시 이전에 배표를 구입할 수 있었다.

여기서 나는 평택시청 관계자나 항만청 관계자들에게 당부한다. 국제항을 개청했으면 거기에 따른 부대편의시설을 만드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토요일 오후1시가 지났으므로 환전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이것은 국제항구가 아니다.

이번 월드컵 때도 중국관광객이 한국에 많이 왔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평택항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중국의 인민폐나 달러를 한국 돈으로 바꾸는 일일 것이다. 현대 명색이 국제항구라는 곳에서 영업시간이 끝났다고 달러를 한국돈으로 환전할 수 없다면 말이 되는가. 평택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교통비는 어떻게 낼 것이며, 돈을 환전하기 위해 은행이 어디에 붙어있는지 산지사방으로 찾아다녀야 할 것이 아닌가.

관광대국이 되려면, 아니 외국관광객을 경기도 혹은 평택시에 유치하려면 사전에 편의시설에 대한 인프라를 철저히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된다. 한마디로 한심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1만8천톤, 용정호(용정호)



○ 용정호 1동실안의 좌변기. 깨끗하고 용수도 충분하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배를 탔다. 1만8천톤급의 용정호. 상당히 큰 여객선이다. 영국의 도버해협을 운항하고 있는 여객선들이 통상 5천톤급부터 1만톤 정도이니 일단 배의 크기는 괜찮다. 배는 클수록 안전하지 않은가. 상해-홍콩간에 투입된 배는 2만3천톤급이고, 동남아 크루즈 관광에 다니는 배는 2만5천톤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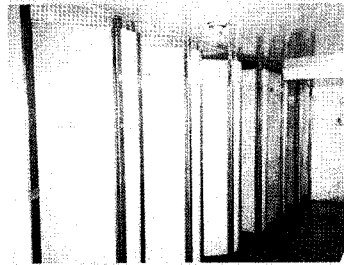
내가 끊은 배표는 1등실이다. 1등석 위로는 로얄실이 있고, 그 위로는 VIP실이 또 있다. 1등실 아래로는 2등실밖에 없다. 말하자면 1등실은 비행기로 치면 이코노미 클래스 정도의 수준이다. 방에 가보니 2층 침대 두 개가 마주보고 있는데 방은 답답할 정도로 작다. 하지만 비행기 요금의 절반 수준이므로 그것은 감내 해야한다. 오후 6시에 출항하는 배는 다음날 아침 8시가 되어야 영성항 도착이다.

자, 그렇다면. 황해를 뛰는 이 배는 화장실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앞으로 한국과 중국의 관광객들이 이 배를 많이 이용할 것이므로 점검에 나섰다. 우선 1등실의 개인용 화장실. 간단하지만, 깨끗하다. 장소가 너무 협소한 것이 문제지만, 지상이 아니라 배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 정화수를 작동해보니 물도 잘 쏟아진다. 별 문제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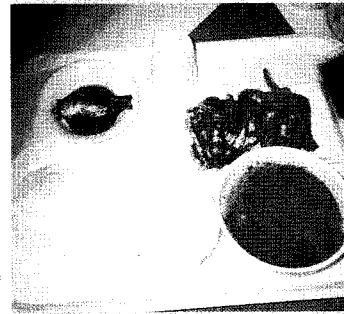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변기의 수도 이만하면 충분하고, 물도 제대로 잘 내려온다. 또 시설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깨끗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지린내가 조금 난다. 탈취제 같은 것을 적당히 사용한다면 별 문제는 없다.

이제 한국과 중국과의 사이에는 역사상 그 유래가 없을 정도로 대규모의 황해시대가 온다. 비행기로서는 그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가 곧 오게 되어 있다. 한중 교역량의 증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그걸 바로 경기가 담담해야하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 사이의 황해를 운항하는 여객선은 한국의 얼굴이자, 인상이다. 비행기와 달리 거기서 하룻밤을 자야하고, 두끼 정도의 식사도 해야하며 용변도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첫 관문이 되는 페리의 편의시설은 그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지만, 앞날을 대비해서 보다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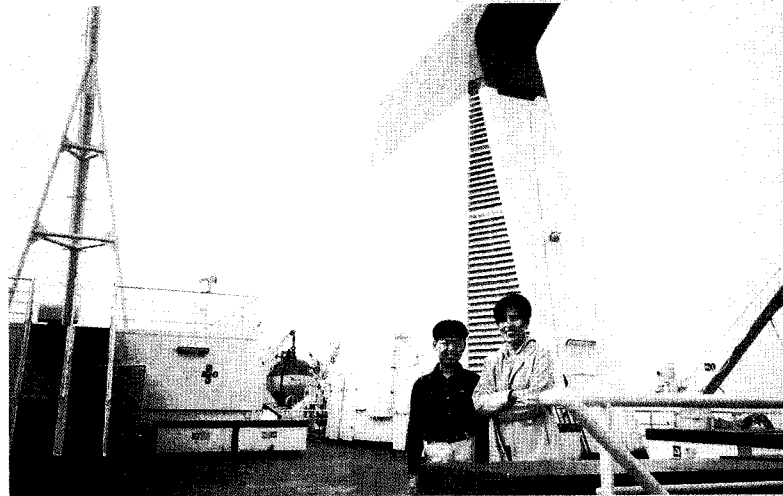
용정호 내의 공중화장실



용정호 식당에서 펼치고있는 백반. 3천5백원인데, 맛은 그저 그렇다.



용정호 공중화장실내의 좌변기 정리정돈이 잘 되어있다.



1만8천원급 용정호